

리버티 오사카 기획전 「니시요도가와 공해와 지역의 재생」 기념행사

「니시요도가와 (西淀川) 공해 피해와 지역의 재생」



시바무라 아즈끼 (柴村篤樹)

(모모야마학원대학 (桃山学院大学) 교수, 아오조라재단 이사)

모리와끼 기미오 (森脇君雄)

(아오조라재단 이사장)

2002년 2월 2일 오후 2시 - / 오사카인권박물관 (리버티 오사카) 연수실

공해반대운동에 몰두하기까지

시바무라: 모리와끼님은 1935년에 태어나, 현재 66세입니다. 1961년에 니시요도가와에 와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반공해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공해 운동에 몰두하기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와끼: 저는 오카야마 (岡山)에서 하쿠비선 (伯備線)을 타고 빗쭈우 (備中) 다카하시역 (高梁駅)에서 하차, 다카하시역에서 20km 정도의 깊은 산속의 취락 (우간읍 (有漢町))의 맨 꼭대기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농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패전하였습니다. 4학년 때의 10월에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5학년과 6학년 때는 전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계속 의원에 다니며 집안에 있었습니다. 중학교에는 들어갔지만, 기초교육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은 그림과 서예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중학교까지 6km 정도로, 매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신체만은 건강했고, 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립의 상업고등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영어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어시간만은 언제나 이유를 붙여서 피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취직한 곳

은 나고야 (名古屋)였습니다. 그 후 2년 정도 지난 후 동경 (東京)으로, 그것도 몇 년으로 바뀌어, 오사카 (大阪)에서 오카야마로 직업을 열 몇 번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저에게 맞는 직업이 없어서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노동쟁의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영업면허 반납 등으로 이 노동쟁의가 장기화함으로써, 당시에 중심지도를 해온 간부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을 떠났습니다. 136명의 운전수가 남았습니다. 할 마음도 없는 저에게 「일급 800엔을 줄 테니까 사무국이 되라」 하여 장기화를 각오한 후 받아들였습니다. 1965년에는 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선출되고, 2년 후에 차고가 오사카시의 토지수용법에 걸려 관리하고 있던 조합에 권리가 나와서, 해결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투쟁의 기록으로써 『불굴의 기』를 출판하고 1,000일 투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시바무라 아즈끼 (모모야마학원대학 교수, 아오조라재단 이사)

1968년에 니시요도가와구에 있는 요도가와근로자후생협회에 취직하였습니다. 그곳의 이 사장이 재미있는 사람으로, 「자네, 어찌 되었든 간에 오오와다 (大和田)에 가서 병원을 만들게」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 병원을 만드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지 못한 채 「오오와다 지키는 회」(나중에 니시요도가와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회 오오와다지부)의 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벼룩이 많이 있었고, 자세히 보자 마루 밑에 고양이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조직은 이름뿐이고 몇 명의 간부가 있을 뿐이어서 조직 만들기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원, 자금원조를 받아 센보쿠병원 (千北病院)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세운 것은 좋았지만 의사회와 트러블을 일으켜 생각처럼 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시의 65세 이상의 무료 노인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노인이 모여 들었습니다. 1969년에 니시요도가와가 공해지역으로 지정되고 『공해와 관계되는 특별조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해병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공해병을 잘 봐 준다」고 소문이 나고, 동시에 원장을 선두로 공해반대투쟁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때 쯤부터 의사회와의 교섭에 의하여, 공해검사센터를 선보꾸병원의 일각에 설치하였습니다. 구의사회(区医師会)의 부속 공해센터였기 때문에 공해병인정환자가 검사를 위하여 년 4회는 모여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접수를 하면서 고통을 듣고, 이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해반대운동의 고양기(高揚期)의 활동

모리와끼: 천식을 알게 된 것은 1968년의 일입니다. 실은 병원을 세우려고 오오와다에 갔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오와다공원에 아이들을 모아두고 매일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스캔다가 5엔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가만히 앉아서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놓자」고 하자, 「저 아이는 천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트 따위는 잘 쥐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배트를 쥐게 하였습니다. 공은 전혀 배트에 맞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아하며 끝나도 저의 소매를 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처의 그 아이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가서 놀란 것은, 그곳의 다다미(畳)의 이곳 저곳에 점점이 피의 흔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아, 고양이가 있구나」고 생각하면서, 고양이가 왜 이렇게 발톱을 세우는 걸까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이 피는 어떻게 된 거죠」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밤의 발작을 괴로워한 나머지 다다미에 손톱을 세워서, 그 손톱 사이에 다다미의 파편이 들어가, 손톱 사이에서 피를 내뿜었던 것이었습니다. 난폭하게 괴로워한 흔적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은, 난다께 데루요(南竹照代)님입니다. 그 여자분도 오오와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만, 굉장히 심한 병상으로, 죽을 즈음에 「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기를 마셔버리면 자기가 마실 공기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최후에는 결국 폐가 위축되어 죽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지로 지까코(網代千佳子)님입니다. 나이는 난다께님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제호텔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마가사끼(尼崎)역에서 천식발작으로 질식사하였습니다.

오오와다지역에서, 근처의 집에서 3명이 공해에 의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보고, 저는 이 운동에 생애를 걸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영성한 남자가 공해운동에 매달리게 된 큰 이유입니다.

공해운동이라는 것은, 보면 더러운 연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자치체, 오염기업에 가서 호소하는 행동을 하자. 어렸을 적에 싸움을 한 것처럼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검사기사인 다나까 쉐(田中千)선생님이 대

단한 공부가로, 기초부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학, 법률, 조직 등의 지식을 얻은 것이, 점점 더 자신을 가지고 공해운동에 매달리게 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해반대운동의 전개와 기업 • 행정의 대응

시바무라: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일본의 공해문제와 반공해 운동을 생각할 때 대단히 큰 고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중반의 운동에서 1970년의 『니시요도가와로부터 공해를 없애는 시민의 회』에 연결되고, 1971년에 『오사카로부터 공해를 없애는 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리와끼님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여 왔습니다만, 당시의 여러 공해운동 안에서 모리와끼님이 어떠한 전개를 해 왔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와끼: 에이다이석유 (永大石油)가 국도 43호선의 데끼지마 (出来島)공단주택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폐유를 사용하여 Pitch Oil 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으로부터 고농도의 아황산가스가 발생하여,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눈이 아프고 자극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로 공단에 심어 있었던 나팔꽃이 하룻밤에 전부 시들어 버려서 큰 소동이 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끼지마지역의 마을회, 신부인 (新婦人)의 회, PTA (역자주: Parent-Teacher Association; 부모와 교사의 회; 부모와 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단위로 조직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센보꾸병원이 에이다이석유의 반공해운동의 거점이 되어 더욱 큰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에이다이석유는 최종적으로는 오사카시가 사들여서 일단락되어, 『에이다이석유의 공해를 없애는 회』에서 『니시요도가와로부터 공해를 없애는 시민의 회』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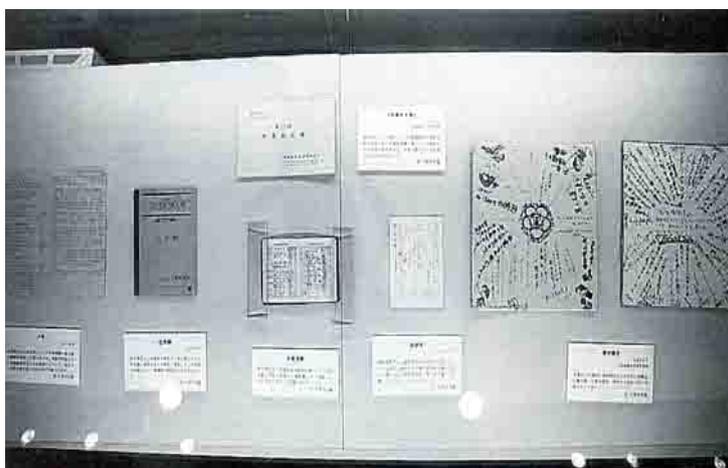
모리와끼 기미오 (아오조라재단 이사장)

당시의 상황은, 스모그가 발생하면 차가 낮에도 라이트를 밝혀도 3m 앞까지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스모그가 심한 관계로 한 번 중지하고, 다시 한 번 재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민당(自民党)을 제외한 정당을 전부 포함시켜 운동을 일으켜서, 1,5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외도(外島)에 공해기업 진출반대」라는 대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운동이 좌익 쪽으로부터 고조되어 온 것에 대하여, 우익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일본적십자사 봉사단이 추방위원회를 만들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구민전부가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사카시도 니시요도가와를 특별대책지구로써 공해기동대를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여, 오오노가와(大野川) 매립, 간자끼가와(神崎川)의 오염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1969년에는 공해피해자가 특별조치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재판에서 옷카이찌(四日市)소송의 주민승소는 저희들의 운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운동의 절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972년에는 구의사회(区医師会)의 협력으로 니시요도가와공해환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공해를 없애는 운동이 머리에 있어서, 환자회운동은 니시요도가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1년 늦어, 전국적으로는 니시요도가와가 3번째의 조직으로써 탄생하였습니다.



난다께 데루요님의 유품 (리버티 오사카 전시)

당시는 환자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기업 각출에 의한 책임과 보상을 시키는 것이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 날의 생활과 아이들의 학비조차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1973년에는 오사카시의회 민생위원회에 찾아가 심야까지 앉아서 농성을 하고, 니시요도가와구 기업 각출에 의한 구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의 운동은, 공해지정지역의 확대와 니시요도가와구 이외에 환자회조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노하나(此花), 죠우또우(城東), 스미노에(住之江), 사카이(堺) 등 여러 지역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녔습니다. 동시에 오염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 관사이

전력 (關西電力)과 오사까제강 (大阪製鋼) 등에 계속하여 「공해기업은 책임을 져라, 피해배상을 실시하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나라 (國)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라」고 가와사끼 (川崎)와 니시요도가와가 공동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운동은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1972년-1973년경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라 (國)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총체적인 운동이라고 할까, 모든 곳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의 집중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얻어, 니시요도가와에서 오사까시 전역이 공해지정지역으로 확대되고, 사카이, 히가시오사까 (東大阪), 도요나카 (豊中), 스이따 (吹田), 모리구찌 (守口)지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들의 지역에서 환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공해지역지정의 확대운동이 전진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니시요도가와의 폭넓은 운동을 지탱한 것은 초등학교의 교육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런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각 초등학교의 공해교육이 운동의 앞 단계에 있었다고 보고하고 싶습니다.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의 개악을 둘러싼 움직임

시바무라: 주민운동이 약해지고, 그리고 공해·환경행정이 후퇴해 가는 정세 안에서, 니시요도가와에서는 공해재판에의 대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공해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의 사정에 대하여 모리와끼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만, 왜 재판에의 대처가 시작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곤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와끼: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만들어진 것은 1973년입니다. 이 제도를 담당한 사람은 하시모또 미찌오 (橋本道夫)님입니다. 나중에 만들어 지는 「전국공해환자연합회」는 이 분의 영향으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법을 만들 때, 옷카이찌, 가와사끼, 아мага사끼, 구라시끼 (倉敷) 등을 불러서, 어떠한 법률을 만들까고 환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당시는 정말로 친절하고 다정한 의사였습니다. 그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중앙공해대책심의회 (中公審)에도 환자의 대표를 집어넣어 토의하는 가운데 아동보상과 주치의의 의견존중 등을 개선하여 제도 안에 도입하였습니다.

니시요도가와 공해재판을 제소한 것은 1978년입니다. 그 6개월 전의 1977년 11월에 오사까부 (大阪府)에 온 하시모또님이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0.02ppm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니시요도가와 재판을 제소하여 3개월 후에는 환경기준이 2-3배 완화되어 버렸습니다. 니시요도가와 재판을 계기로 재계전체로부터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토오하시 (瀬戸大橋)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바로 앞의 부분이 0.02ppm으로는 불가능한 관계로, 0.04ppm에서 0.06ppm으로 완화하였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니시요도가와 재판에서는 「이 기준을 지켜라」고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이 재판을 일으키자마자 2배에서 3배로 완화되었으므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기준완화는 공해대책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증대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환경청(環境庁)과는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6월에 중의원(衆議院, 역자주: 일본국회의 하원) 공해특별위원회의 참고인으로써 「NO₂환경기준완화반대」의 의견진술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연속하여 하시모토 대기보전 국장님과 교섭, 10일에는 심야까지 교섭하였지만, 교섭하고 있는 동안에 TV에서 환경기준완화가 방영되는 심한 이야기입니다. 동경도, 오사카부 등 많은 자치체가 기준완화를 반대하였습니다. 국회답변에서와 위원회에서는 서둘러서 강행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세계의 지도로 더 한층 굉장한 반격을 해왔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는 1976년에 「공해건강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하고, 1978년에는 「공해지정지역을 없애고,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부수다」라는 내부기밀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대량으로 깨끗한 컬러의 팸플릿을 발행하여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데,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대 선전을 하였습니다. 1981년 12월에 임시행정조사회에 대하여 「환경행정의 합리화에 관한 요망」을 제출, 1983년 3월에 임시행정조사회 최종답신에서는 「지정지역 및 해제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단에 자주 사용된 일러스트 (니시요도가와공해환자와 가족의 회 보존자료에서)

한편 피해자단체측의 움직임입니다만, 전국각지의 환자회는 1973년 11월에 나고야에서 「전국공해환자회 준비회」를 결성하였습니다(7 지역). 1976년 6월에는 「전국공해환자회 준비회」, 전국의 공해변호사, 이따이이따이병 대책협의회, 도요나카(豊中)공항소송, 니이가타(新潟) 미나마따소송 등이 모여서, 전국의 공해피해자는 통일하여 『공해피해자 총행동날』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교섭에서는 환경주건과 동시에 환경성(環境省),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피고기업 등 각 지역의 공해피해자가 요구를 제각기 가지고 모여, 해결을 위하여 하

나 하나씩을 투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투쟁이 전국투쟁으로 번지고, 1981년 5월에 오사카에서 「전국공해환자회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보상법이 개악되기까지의 5년간은 전국대기오염환자가 동경에서 굉장한 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지난번의 중앙행동은 23을 기록, 총 5,69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전단배부는 109 국회만 86,000장, 환자회의 상주자 243명이었습니다.

임시행정조사회 투쟁에서는, 1983년 1월 10일에는 직접 임시행정조사회 전에 600명이 앉아서 농성하고, 대표자에게 직소문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는 등 정월을 반환하면서까지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답신을 4회 고쳐 쓰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1983년 11월에 환경청은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지정지역의 조건 재검토, 지정해제」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지방자치체에 지정지역해제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연합회는 긴급중앙행동을 취하고, 이보다는 중앙공해대책심의회 개최시의 요청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회는 중앙행동과 함께 자기 고장의 행동에 전력을 올리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체에도 지정지역해제에 반대하도록 연일교섭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노동조합(自治勞)의 간부와도 교섭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소를 결정한 환자회 임시총회

1986년 10월에 중앙공해대책심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41개 지정지역을 전면해제, 신기 인정하지 않음」의 답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환자회는 국회투쟁을 위하여 제 2 라운드의 체제를 조직하였습니다. 사무국 7명의 전종(專從)체제로 전국에서의 참가환자와 함께 국회의원, 정당, 노동조합(노조), 단체를 다니면서 가두전단을 매일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결국 1987년 9월에 제 109 임시국회에서 보상법은 개악되고, 새로운 환자는 구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가결문서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의 결론부분, 밑에서부터 3행을 고쳐서 강행된 것입니다. 당일은 전국에서 환자, 지원을 포함하여 550명이 참가하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내서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가스미가세끼 (霞ヶ関) 제 5빌딩 합동청사의 1층 로비와 정면 현관 앞에서 안과 밖이 일체가 된 항의로, 앉아서 농성을 정연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보상법 개악에 대하여 환자회는 중앙집회를 열어 「재판투쟁의 강화」를 호소하고, 새롭게 아마가사끼, 나고야에서 재판을 일으켜 반격의 봉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지바 (千葉), 니시요도가와, 가와사끼, 구라시끼의 재판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시바무라: 재판이 1978년 이후 몰두해 갑니다만, 이 재판은 원래 이길 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대처로 우여곡절을 겪고 승리하지만, 그 이길 수 없는 재판을 어떻게 이겼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재판에 이겨도 끝나지 않는 공해

모리와끼: 1972년에 대기오염재판에서 시작하여 옷까이찌 소송에서 주민의 승리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해에 주민의 투쟁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옷까이찌 인정환자회의 쓰까다 (塚田)사무국장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옷까이찌의 중심가에는 굴뚝이 대단히 많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태양의 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시내가 공동화 (空洞化)하여 기업주택에는 사람이 정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깨끗하였지만 물고기가 전혀 헤엄치고 있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만들었지만, 법률안에서는 누가 오염시킨 범인인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공해기업이 범인이다」 「피해를 내서 나뻐다」라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염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기업도 「책임의 일부분은 있다」고 하면서도, 나라 (國)의 법률안에 숨어 버렸습니다. 저의 마음 속에서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음으로 오염기업을 법정에 내세우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 니시요도가와가 공해지정지역이 된 해인 1969년, 오사카변호사회 공해대책위원회는 「오사카 천식과 말하는 니시요도가와 일대의 대기오염 및 사까이지역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변호사회의 월보에 「니시요도가와 지구의 실태조사경과보고」가 게재되고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단히 곤란하여 오염원의 특징을 옷까이찌와 비교하여도, 사법적 구제의 효과에 대해 중소기업이 많은 옷까이찌와 비교하여도 곤란하다. 하지만 피해의 구제를 추진하고 후원한다는 면에서 어필의 필요가 있다」라고 써있었습니다. 당시는 환자회도 결성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운동도 고조가 없었습니다. 이노우에 요시오 (井上善

雄)변호사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재판이 종료한 후입니다.

니시요도가와에서 재판을 일으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197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청년법률가협회의 이따나미 (伊多波)사무국장님을 방문하여, 「니시요도가와에서 재판은 할 수 없는가」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요나카 (豊中)에서 열린 「청년법률가협회 제 5회 전국공해연구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7월 27일의 전체회의에서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심하고 환자수도 많은 니시요도가와에서 재판은 할 수 없는가!」고 호소하고, 청년법률가협회 오사까지부의 대기오염문제연구회에도 환자회가 1974년 3월 28일에 문서로 제의하여, 오사까변호사회는 4월 11일에 니시요도가와의 대기오염재판대책을 위한 니시요도가와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1975년 7월에 오사까변호사회에서 「니시요도가와의 공해실태조사보고」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를 받아서 대기오염연구회가 니시요도가와의 피해자 사이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슬로건은 학습 · 단결 · 행동 그리고 승리

대기오염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제소까지 2년 9개월 동안 길고, 괴롭고, 어려운 투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금지소송의 문제에서는 학자, 변호사, 피해자가 모여서 검토하고, 합숙에서 성공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지만 결정되지 않고, 또한 대기오염과 기상의 관계를 학습하고, 어떻게 니시요도가와에 오염물질이 도달하는가,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기업을 피고로 하는가!」 「니시요도가와는 “전염된 공해”로 고장의 기업 배출량이 적다!」 등으로 의론백출, 시간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976년 11월에 제소에의 의견이 뭉쳐 12월부터 각반에서 방침토의의 학습회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1977년 2월에 학자, 변호사의 합동합숙이 있었습니다. 제소에의 문제점을 마무리 짓고 이력저력 외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단구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단장후보인 「거물」 후보로부터 호의적인 회신이 없어서, 1977년 12월에 초대 일본변호사연합회 (日弁連)의 공해위원장이었던 세끼다 마사오 (関田政雄)선생님을 생각해내고, 부탁을 하여 흔쾌히 받아들여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의사, 교직원, 변호사, 시민의 협력을 얻어 1976년 9월에 「니시요도가와 - 공해를 없애자」의 팸플릿을 발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공해피해의 실태와 더러운 공기, 공해대책과 오염원 등을 알기 쉽게 쓴 것이었습니다. 이로 많은 시민에게 공해를 없애는 운동을 펼쳐, 고장의 진흥읍회 (振興町会), 학교, 부하 (府下)의 단체에도 설명을 하기 위하여 갔었습니다.

환자회에서는 간부회, 지부회의, 반 (班)회의를 열고, 전원참가를 슬로건으로 「1로 학습, 2로 단결, 3로 행동, 4로 승리」를 철저하게 의논하였습니다.



부내 (府内)를 시작으로 13개소에서 개최된 공감광장

1977년 1월에 「신춘 첫 대면」 간부반장합동회의에서 재판의 제소를 제안하고 단결을 맹세하였습니다. 동시에 「제소의 찬성여부와 제소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의 환자회는 9개 지부, 71반, 1,730세대, 2,600명 이상이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총회를 위하여 환자회는 1. 왜 소송을 준비하여 왔는가, 2. 소송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가, 3. 재판승리를 위한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9개 지부, 71반은 3개월에 걸쳐 모든 반이 회의를 열고, 재판을 환자회 운동의 하나로 위치 붙여, 찬성인가 반대인가, 어느 기업에 책임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토의안과 『없애자 공해』 팸플릿을 가지고, 반의 토의에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83%의 사람이 참가하여 토의한 결과, 「제소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송에 대한 태도는 모두가 단결하여 소송을 하자 98.5%였습니다.

토의 중에서 많이 나온 의견은 「몇 년 걸리는 건가」 「이길 전망은」 「재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 등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은 「몇 년 걸리는가」 「3년 이상은 걸리겠지?」, 다음의 「승리할까」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기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이런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참고 있을 겁니까?」고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선생님 쪽에서도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하자고 결의를 굳혔습니다.

감정에도 배려한 피고선택

이 재판은 오래 끌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미나마따 (水俣), 이따이이따이병, 옷까이찌소송

등은 1심의 승리로부터 2년 정도에 해결되었습니다.

니시요도가와 재판의 복합오염의 어려움과, 누가 범인인지 모르고, 관서(關西)의 대기업을 상대로 하였지만, 그래도 「3년 정도가 아닐까」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느 기업을 피고로 선택하는가」는 질문에는, 1972년의 중유(重油)를 대량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매진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니시요도가와의 기업은 옆의 아마가사키와 고노하나의 관사이전력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고, 최고의 오사까제강에서도 관사이전력의 배출량의 9%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배출하고 있는 양이 지극히 적었습니다. 니시요도가와의 피고 이외의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비율은 많았습니다. 만안(灣岸)의 전체로부터 연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일부의 “전염된 공해”인 니시요도가와가 재판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니시요도가와의 기업에서 피고를 택하는 작업으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 구민감정으로는 후루카와광업(古河鋳業), 일본화학(日本化學), 오사까제강, 나까야마제강(中山製鋼)을 꼭 피고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더러운 연기와 분진으로 건강을 해치고 고생을 해온 피해자가 「저 기업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감정도 있어서, 배출량의 차례로 택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한과 감정이 많았던 일본화학이 피고로부터 제외되고 나까야마제강이 피고가 된 것도 토의의 결과입니다. 나라(國), 공단을 피고로 하는가는 변호인단에서 상당히 논의하여 「오리무중의 상태 안에서 집어넣자」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사까시에는 오오와다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배출량이 많은 피고로 하는 것도 생각하였지만, 재판에서는 우리 편, 중립의 입장에서 자료의 제출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 피고로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피고기업은 관사이전력을 시작으로 10사(19 사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기업, 나라(國), 니시요도가와의 중소기업을 집어넣는 것으로 재판투쟁이 장기화하고, 지는 것을 각오한 후에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재판에 견디는 피고를

환자회는 1976년 10월에 제 5회 총회에서 제소의 방향으로 토의방침을 내놓고 제소까지는 변호인단과 일체가 되어 원고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별·연령별·등급별로 아동 5명도 집어넣어서 98명, 사망자, 유족을 가하여 118명을 대표소송원고로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15년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각 지부의 활동가를 선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 택하였습니다.

1977년 8월에 오오와다초등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해소송 제소를 하는 것을 전원 일치로 정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78년 4월 20일에 오사까지방법원에 제 1차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 날은 「오사까공해환자회 연합회 제 2회 총회」도 겹치고 있어, 나까노시마(中ノ島)중앙공회당에서 1,500명이 모여, 오후 1시에 총회, 2시부터 제소행동에 지원 참가하였습니다.

제 1회 공판이 7월 26일로 결정되고, 전야집회는 「오사카로부터 공해를 없애는 회」와 공동개최, 「니시요도가와 소송승리결기집회」에는 1,150명이 오오와다초등학교에 모였습니다. 회장은 사람으로 가득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을 제 2회장으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은 뜨겁고 얼음기둥을 세우는 열기 속에서 하마다 고우스께 (浜田耕助)회장님, 세키 다변호인단 단장님이 힘차게 끝나갔습니다.

재판투쟁에 들어가자 예상했던 대로 대단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의 대기업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자료의 내용을 하나씩 보며 굴뚝의 길이, 크기를 계산하여 풍향을 조사하고, 「이 정도는 배출하고 있겠지」라고 하나 하나씩 입증해 가는 정신이 멀어져 갈 정도의 일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하였습니다. 사무국의 무라카미 (村上)님은 기상대의 자료에서 바람의 방향마다 화살표를 부착시키면서, 매일 조사하여 써넣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생하면서 재판을 하나 하나씩 진척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이긴 것이 희한하고 정말로 잘됐다고 느낍니다.

시바무라: 원래 니시요도가와 재판은 어려웠습니다. 강대한 대기업과 나라 (國)를 상대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의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만, 옷까이찌와 같은 콤비나트, 혹은 미나마따와 같은 가해기업이 명확한 곳과는 달라서,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영세기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옆의 아마가사끼·고노하나 등 오염원이 다양하여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곤란함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승리로 이끌었는가

1978년에 제소하여,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제 1차 소송 판결이 나온 것이 1991년으로, 그것만으로도 13년이 걸렸습니다. 제 2차와 제 3차 소송의 판결이 나온 것이 1995년, 나라 (國)·도로공단과의 최종화해가 1998년으로, 재판에 20년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저는 고야마 히토시 (小山仁示)선생님의 명령으로 니시요도가와 공해의 역사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면 그때는 젊었고, 변호사의 하야카와 미쯔토시 (早川光俊)선생님과 쓰루사끼 (津留崎)선생님은 저보다도 조금 젊기 때문에,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끝나고 보니 결국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리와끼님과 고야마선생님 정도라는 (웃음).... 그러한 정말로 긴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자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1년의 제 1차 소송의 승리, 그리고 1998년의 최종화해, 그러한 여러 곤란을 안고 마침내 승리에 도달함으로써, 그때의 상황, 특히 승리를 가져온 요인과 같은 것도 포함하여, 재판의 총괄을 부탁 드립니다.

모리와끼: 니시요도가와 재판이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상대의 피고가 강대하였다는 것과, 자료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보다도 환자 자신의 움직임이 재판보다 나라 (國),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과의 투쟁에 휩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해지정지역이 해제되고, 보상법조차 위험한 상황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공세를 취하여, 나라 (國)가 그에 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투쟁을 먼저 전력투구로 하였습니다. 니시요도가와 재판도 계속하면서, 니시요도가와 변호인단, 원고인단, 환자가 동경에 계속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간 동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지역해제를 포함한 임시행정조사회의에서의 공격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쪽이 「방비」의 투쟁을 철저히 한 것으로, 재판투쟁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000명이 모인 유채꽃행동

그 동안에 니시요도가와 환자회가 재판을 지도해 왔습니다만, 원고인단의 강화와 자금원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제 2차 원고 417명이 1984년 7월에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를 슬로건으로 「칠석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 3차를 포함하여 새롭게 원고인단결성총회를 열고, 하마다회장님을 원고인단 단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1985년 5월에 제 3차 원고 143명을 추가 제소하고, 동경에 있었던 저도 원고에 가담하여, 환자회의 운동에서 재판투쟁도 중시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생명을 건 괴롭고 격렬하고 긴 투쟁이었지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요망한대로 1987년 9월의 제 19회 임시국회에서 보상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공해지정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그 후는 신규환자의 구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